

國立政治大學 101 學年度碩士班招生考試試題

第 1 頁，共 4 頁

考試科目	韓文	所別	韓語系 616	考試時間	2月26日(日)第3~4節
------	----	----	------------	------	---------------

一、

一、韓翻中 (16%)

서양의 복지 국가일수록 일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여 충분히 일할 여력이 있더라도 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하기에 놀고 먹는 사람들이 증가함으로써 복지 국가의 새로운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좋은 옷을 입고 쾌적한 집에 살며 사회적 선망을 받는 지위에 오르고 싶다는, 그런 현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한 인간은 허덕허덕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지만 그같은 가치 목표 자체를 부정하고 산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풍요로운 사회에서는 노폐물로 많은 분량의 현 옷을 방출한다. 그것을 주워 몸에 걸치면 그런 대로 신체의 노출을 막을 수 있고, 낡은 모포 한 장만 있으면 다리 밑이건 선창의 쳐마 밑에서 건잠을 잘 수가 있다. 인생이란 일하지 않고 그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 히피의 인생관이다.

노동을 전혀 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생명 유지 상태가 히피라고 할 때, 히피가 우리나라에서 발붙이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서 노동에 대한 원칙적인 가치관의 차이를 들 수 있다.



二、中翻韓 (14%)

1. 不管哪個國家，被選為紙鈔上的人物多半是留下豐功偉業的人。偉大的哲學家或政治家、思想家等都是。從世界各種紙鈔來看，可以很容易確知。當然，也是有以一般人或東西為樣版的紙鈔。像台灣的一千元就是以兒童、而韓國的一萬元則以渾天儀為主題。(8%)

2. 我們強力主張，有錢人要增稅，尤其是財團的法人稅。必須要那樣做的理由有三種，第一、因為若要建造一個大家所希望的福祉社會，就必須擴增財源；第二、因為想要解除日漸嚴重的兩極化社會與所得不均等現象，拿走大部分國民所得的財團必須貢獻其稅收；第三、因為大企業必須負起很大的社會責任。大財團們，不要只是作秀般地一次捐一大筆錢，也請不要逃稅，請乖乖地繳稅，回饋社會。(16%)

備註	試題隨卷繳交
----	--------

考試科目	韓文	所別	韓國語文學系碩士班 6161	考試時間	2月26日(星期日) 第3節 ~4節
------	----	----	-------------------	------	-----------------------

貳、

一、名詞解釋（請用中文簡單說明下列各詞彙之年代、意涵與重要性。共 6 題，每題 1.5 分，計 9 分）

1. 향찰(鄉札)
2. 설화(說話)
3. 삼국유사(三國遺事)
4. 금오신화(金鰲新話)
5. 판소리
6. 황석영(黃晳英)



二、申論題（請針對下列提問，用韓文詳細陳述個人之看法。按每小題標示計分，計 21 分）

1. 중국의 한자는 한국, 일본, 베트남 등 여러 나라에 보급되어 그 나라의 독특한 음운에 맞는 한자음을 창안했으나 문학활동만은 한문의 문장법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한문으로 표현한 중국 문학의 여러 양식을 그대로 본받아 창작했다.

1) 한국의 한문학(漢文學)도 한국 문학의 한 종류로 봐야 하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보세요. (3 점)

2) 유명한 한국 한문학 작품 속에서 예를 몇 개만 들어 주세요. (1.5점)

* 下 頁 尚 有 試 題 *

考試科目	韓文	所別	韓國語文學系碩士班 6161	考試時間	2月26日(星期日) 第3節 ~40P
------	----	----	-------------------	------	------------------------

2. 1926년에 간행된 아래의 작품은 한용운(韓龍雲)을 시인으로서 중요한 인물의 위치에 올려 놓은 한국 현대시사상의 한 기념비이다. 그의 시는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쓴 서정시로 유명하다. 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¹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²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 치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꽂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念慮)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겉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박이³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曲調)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훑싸고 돋니다.

- 1) 이 시의 작품명은 무엇입니까? (1.5점)
- 2) 이 작품 속에 계속 나타나는 ‘님’이란 단어는 무엇을 가르키는 것인가? 그리고 이 시의 전체적인 흐름(起、承、轉、結)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작품해설을 하세요. (3 점)
- 3) 이 작품을 전부 중국말로 번역해 주세요. (/2 점)

¹ 깨치다: 일의 이차 따위를 깨달아 알다.

² 떨치다: 세게 흔들어서 떨어지게 하다.

³ 정수박이: 사물의 제일 꼭대기 부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國立政治大學 101 學年度碩士班招生考試試題

第4頁，共4頁

考試科目	韓文	所別	韓國語言文學系 6161	考試時間	2月26日(日) 第3~4節
------	----	----	-----------------	------	----------------

卷

1. 한국 최초의 국가 형성에 대해서 역사적 기록, 시기, 인물, 의의 등을 중심으로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7.5%)

2. 한국과 중국은 근대 국가 이전에는 특수한 형태의 통상 관계가 있었다. 이 형태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7.5%)

3. 현재 남북한이 분단되어 존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7.5%)

4. 한국이 한국전쟁 이후 세계 최빈국에서 현재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루한 국가로 된 배경에 대해 아는 대로 기술하시오. (7.5%)



備	註 試題隨卷繳交
---	----------